

News

3%대로 내려간 예금금리…하나은행 홀로 4%대 유지

매일경제

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음
주요 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3%대가 대세가 될 전망

금리상한형 주담대 인기 시들… 당국 압박 毒 됐다

디지털타임스

4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금리상한형 주담대 취급 실적은 211건으로 집계, 11월에 292건이 취급된 것과 비교하면 27.7% 감소
적극적인 금리 개입으로 시중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고, 특례보증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비교해 상품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

우리금융,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서울경제

우리금융그룹이 다올금융그룹의 벤처캐피탈(VC) 계열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
실사 후 최종 주식 매매계약 협상을 통해 올 3월 이내 매각 거래를 종결할 예정

카드·캐피탈사, 상환 능력 떨어지는 중소기업 대출 거절한다

뉴스1

여신협회 '여전사 기업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' 제정
여전사, 차주 상환 능력에 중점…대출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

보험사 신용대출 평균금리 최고 13% 육박

보험매일

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를 통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최고 13%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
보험사,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도 줄이는 추세

'주력상품 판매 줄어드는 생보사, 운전자보험 출시 잇따라

미디어펜

생명보험사들도 자동차부상치료를비를 탑재한 상해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
최근 생보사들이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부치 특약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모습

연 5% 비우량채도 팔린다…증권사 특판 확보 경쟁

한국경제TV

지난해 연말부터 우량 회사채가 흥행 중인데 이어 `신용등급 A` 회사채에도 매수세가 감지
자금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증권사들은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등급이 낮은 비우량채권도 특판 상품으로 선보이기 시작

세무사·변호사 줄줄이 채용…증권사, M&A시장 선점

MTN뉴스

증권사들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 인수·합병(M&A) 조직에 힘을 싣고 있음
M&A를 IB부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구상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